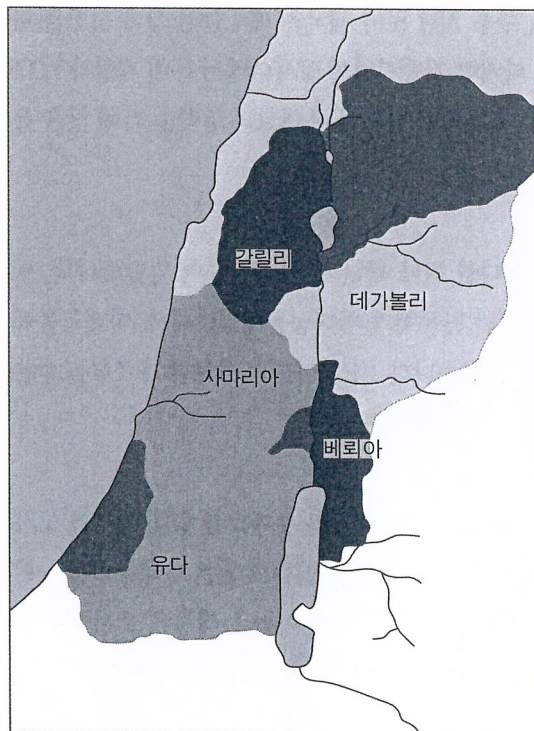


제 44 강 B

#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마태복음 연구 I-2)

■ 성경본문 마태복음 4:17-16:20 ■

## 프렐류드(Prelude)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

우리는 제 44 강 A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 계보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는 사탄 까지도 대적하시고 또 제압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어 오늘은 예수의 사역을 주제로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

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는 한 구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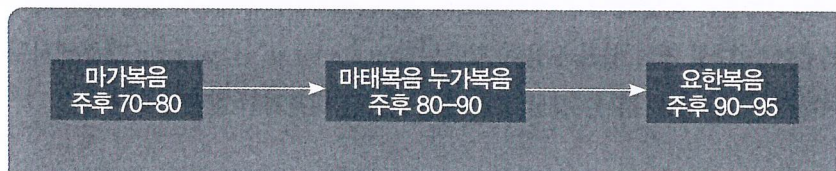


사역은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회당’, ‘천국 복음’, ‘병 고치심’, ‘약한 것의 치유’가 지상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설교 그리고 이적 사역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 I. 주요 내용

1. 설교자 예수(마태복음 5-7장)
2. 이적을 행하는 자 예수(마태복음 8-9장)
3. 교육자 예수(마태복음 10:1-16:20)

### 〈연대표〉



## II. 시대적 배경

주전 586년 바빌론이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후 유대인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악한 세계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저주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을 꺾으시고 승리하셔서 친히 그의 백성을 다스릴 때가 올 것을 기다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주로 에세네파 운동, 쿨란 공동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을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흐름은 율법의 문자주의적 해석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무장하여 흠이 없는 경건과 삶을 살아가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박해 때 일어난 ‘핫시딤’에서 이어 온 바리새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율법으로 위장한 형식주의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 합니다.



예수는 이 두 흐름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포기하고 미래만을 기다리는 도피주의와 율법을 진리의 잣대로 삼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주의를 모두 거부하시고, 바로 이 땅, 이 세계, 타락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인 이 세계를 친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 III. 말씀과 해석

#### 1. 설교자 예수(마태복음 5-7장)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설교 모음이 있습니다(마 5-7, 10, 13, 18, 24-25장). 그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7장은 ‘산상 설교’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복선언(마 5:1-12)
빛과 소금(마 5:13-16)
율법 재해석(살인, 간음, 맹세, 원수사랑)(마 5:17-48)
외식하지 말라(구제, 기도, 금식할 때)(마 6:1-18)
올바른 물질관(마 6:19-34)
비판하지 말라(마 7:1-5)
구하라(마 7:7-12)
좁은 문(마 7:13-14)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마 7:15-23)
반석 위에 세운 집(마 7:24-27)

산상설교는 ‘축복선언’으로 시작합니다(마 5:3-12).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로 인하여 온갖 고초를 겪는 자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 2. 이적을 행하는 자 예수(마태복음 8-9장)

예수께서는 공생애 사역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을(마 9:8),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적사역은 ‘치유’, ‘자연’, ‘귀신축출’이었습니다.

치유 이적은 문둥병자(마 8:2), 백부장의 하인(마 8:6), 베드로의 장모(마 8:14),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마 9:1), 한 관리의 딸(마 9:18-19, 23:26),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마 9:20-22), 두 소경(마 9:27-31)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연 이적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사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사건(마 8:23-27)이 이에 속합니다.

귀신축출 이적은 가다라의 무덤사이의 두 광인(마 8:28-34)과 귀신들려 병어리가 된 자(마 9:32-34) 등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적 속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마 8:10, 13, 9:2, 22, 29). 하나님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 3. 교육자 예수(마태복음 10:1-16:20)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의 대상은 좁게는 12 제자들이고(마 10:1) 넓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마 13:2).

12 제자 부르심과 가르치심(마 10:2-42)은 “안식일의 주인”(마 12:8), “요나보다 더 큰 이”(12:41), “솔로몬보다 더 큰 이”(마 12:42)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서 예수는 교육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마 13:3-23), 겨자씨(마 13:31-33) 비유는 대중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 교육의 통로였으며, 제자들과는 묻고 답하는 대화법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답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설교자, 이적을 행하는 자, 교육자로 부각시킴으로써 모세보다 더 큰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구세주로 증언하였습니다.

#### IV. 성찰과 나눔

1. 전술한 대로 마태복음은 시리아 안디옥의 마태공동체가 만들어 낸 복음서입니다. 마가공동체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반면, 마태공동체는 부유하고 유식하고 유대교를 잘 아는 신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2. 그러나 이들은 유대교의 심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을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다윗의 후손으로 부각시켜 예수는 모세보다 크신 이로 높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보자로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 인류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가르침으로 모세와 율법을 완성하시는 구주로 높였습니다.

4. 더욱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서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율법보다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 땅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신 사역을 높였습니다.